# ‘전주 올해의 책’ 3권 선정

## 어린이 · 청소년 · 성인 부문… 전주독서대전 연계 프로그램 추진

전주시는 전주 올해의 책 3권을 선정했다. 성인 부문 ‘일의 기쁨과 슬픔’

책 읽기 좋은 도서관도시 전주시가 시민들과 함께 선정한 3권의 ‘2020 전주 올해의 책’을 활용한 전주독서대전 프로그램 만들기에 나선다.

시는 ‘2020 전주 올해의 책’으로 △으랏차차 조선실록수호대(글 장은영 · 그림 홍선주, 파란자전거) △수상한 질문, 위험한 생각들(강양구, 북트리거) △일의 기쁨과 슬픔(장류진, 창비) 등 총 3권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어린이 부문의 도서는 ‘으랏차차 조선실록 수호대(글 장은영 · 그림 홍선주, 파란자전거)’로, 임진왜란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힘을 합쳐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위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또 지역의 역사를 소재로 짜임새 있는 구성과 탄탄한 스토리를 갖춘 작품이다.

청소년 부문의 경우 선거와 결혼, 시험 등 사회의 통념을 파헤쳐보고 ‘질문하는 기자’라는 수식어와 함께 각종 언론인상을 수상한 저자의 날카로운 시선이 돋보인 ‘수상한 질문, 위험한 생각들(강양구, 북트리거)’이 선정됐다.

성인 부문에서는 ‘일의 기쁨과 슬픔(장류진, 창비)’으로 주로 2~30대 젊은 직장인들의 이야기를 다뤄 전국의 많은 직장인들의 큰 공감을 불러일으킨 작품이 선정됐다. 이 작품은 문학계 새로운 얼굴인 장류진 작가의 회사 생활 경험이 직접적으로 녹아있어 리얼리티가 살아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2020 전주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도서는 오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리는 ‘2020 전주독서대전’과 연계해 △독서릴레이 △100일 필사 △독서토론과 낭독 콘서트 △독후감 공모전 및 저자 초청 강연회 등 알차고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함께 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독서 관련 단체로부터 후보도서를 추천받아 2차례에 걸친 실무기획단 회의와 1 · 2차 시민 선호도조사를 거치는 등 지난 2개월간 엄격하고 공정한 도서 선정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다. 특히 1 · 2차로 진행된 시민 선호도조사에는 각각 4127명과 2,915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등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장미경 전주시 덕진도서관장은 “‘2020 전주 올해의 책’ 선정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시민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다채로운 독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친환경 농가 지원대책 추진

## 개학 연기로 판로 막힌 농가 위해 농산물 소비운동 · 판로 개척 등 나서

전주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농산물 소비운동과 농가 일손 돕기, 판로 개척 등 친환경 농가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학교 개학이 다음달 6일까지 연기되면서 판로를 찾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농가들을 위한 농산물 소비운동에 소매를 걷어붙였다.

전주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농산물 소비운동과 농가 일손 돕기, 판로 개척 등 친환경 농가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친환경 농가 지원은 3월 중순 공급 예정이었던 얼갈이, 근대, 애호박 등 농산물이 개학 연기로 판로가 막히면서 갈아엎을 위기에 직면했다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다.

우선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따라 외식을 자제하고 있는 전주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얼갈이배추, 근대, 애호박, 파 등 채소류로 구성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250상자를 판매하는 ‘가족건강밥상’ 운동을 추진키로 했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감자, 양파 등 24개 품목에서 220여 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또한 전주시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얼갈이 300kg, 열무 100kg, 취나물 120kg 등을 구입해 ‘힐링반찬’ 나눔 활동도 진행키로 했다.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해 반찬을 만든 뒤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하는 나눔을 통해 농가와 취약계층을 동시에 도울 수 있어서다.

이와 함께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지난 23일 친환경 농가를 직접 방문해 얼갈이 수확과 농산물 포장을 돕기도 했다. 나아가 전주시와 도농상생교류협약을 맺은 서대문구청을 대상으로 2~3만 원대의 ‘전주 농산물 꾸러미 판매운동’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농업기술센터를 시작으로 의회사무국, 완산구청 등에서 전주딸기 사주기 운동을 진행했으며, 화훼 소비 급감으로 타격을 입은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화훼이동장터를 추진해 32개 기관에서 4,152만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또 전주시 전 청원이 동참하는 1테이블 1플라워 운동도 펼치고 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승화원, 청명 · 한식 맞아 개장 유골 화장 확대

## 4월1일~5일 총 140기 운영

전주승화원이 다음 달 4~5일 청명 · 한식을 맞아 개장 유골 화장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24일 전주시설공단(이사장 백순기)에 따르면, 전주승화원은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청명 · 한식을 전후로 총 5일을 특별운영 기간으로 정하고 유골화장 예약 기수를 총 140기로 확대해 운영한다.

이 기간 총 6기의 화장로 중 3기는 시신 화장, 나머지 3기는 개장 유골 화장 용도로 사용된다. 특히 한식 당일인 5일 하루 유골 화장에 총 60기를 운영할 예정이다. 평일 유골화장 기수(8기)의 8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오전 8시부터 모든 화장로를 풀가동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게 공단의 방침이다.

개장 유골을 화장하기 위해선 사전에 묘지 소재 읍 ·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개장신고를 하고 개장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개장 유골 화장료는 전주 · 완주 소재 2만8000원, 도내 타 시 · 군은 9만 원이다. 효자공원묘지 내 소재한 개장 유골은 화장사용료 전액이 감면되며, 봉안시설(자연장 포함) 사용료도 50% 감면된다.

한식은 설날, 단오, 추석과 함께 4대 명절 중 하나다. 산소에 손을 대도 탈이 없는 날로 여겨 산소에 잔디를 새로 입히거나 비석을 세우고, 이장을 한다.

백순기 이사장은 “청명 · 한식 기간 개장 유골 화장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이 한창인 만큼 승화원 방문 시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와 함께 방문 인원 최소화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장난감 대여

## 장난감도서관 3개소 주차장 내 대여부스서 전화 예약 후 가능

전주시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집안 내 활동이 많은 영유아들을 위해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장난감을 대여한다.

아동친화도시 전주시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집안 내 활동이 많은 영유아들을 위해 드라이브 스루(승차 전달) 방식으로 장난감을 대여키로 했다.

시는 장난감도서관 주차장 내에 대여부스를 설치하고 장난감대여 가입회원들을 대상으로 평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장난감 대여를 신청 받고 오후 13시부터 15시까지 장난감을 대여해 주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장난감은 전주시야호장난감도서관 홈페이지(yaho.jeonjuscc.or.kr) 및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jeonjuscc.or.kr)를 통해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예약 후 대여부스에서 회원증을 제시하고 빌릴 수 있다.

대여는 1인당 2점까지 가능하며, 대여기간은 15일이다.

장난감 대여 장소는 인후3동 주민센터의 야호장난감도서관 인후점(063-901-1118), 메가월드 내 야호장난감도서관 송천점(063-901-1103),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위치한 행복나눔장난감도서관(063-905-6510) 등 3곳에서 가능하다.

시는 승차 전달방식을 통해 이용 시민과 직원간 대면시간을 최소화하고 부스 직원들은 마스크와 안전장갑 착용 등 안전 위생수칙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대여 장난감에 대한 철저한 소독으로 감염 위험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윤상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